

「농촌체험」함께 가요!!

- 녹색농촌체험관광 현장 이야기 -



홍 일 표 연합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서울특별시연합회



▲ 네 사람 손잡고(외쪽부터 임영빈 지리산약초마을 대표, 천사령 함양군수, 홍일표 연합회장, 이시온 박사(사이언스웨터))

따르릉... .. 전화벨소리.

“우리 노래교실 친구 다섯명 있는데 언제 사과 따러 갈 수 있나요.”

“작년에 황성 터덕 캐기 너무 좋아 올해도 가고 싶어요.”

“지난번 가서 캐온 무안양과 단단하고 달았어요. 택배신청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무실 전화, 집 전화, 핸드폰 벨소리가 온통 농촌체험으로 즐거운 비명을 날립니다.

일년 평균 2~3천명 쉰기다 보니 난생처음 가본다는 초보참가자도 많지만 어느새 단골손님도 해마다 늘어 기득권(?)을 앞세워 “난 절대로 빼놓지 말고 꼭 해줘야

한다.”고 신신당부가 모자라 압력까지 행사해 오는 때도 많습니다. 단골들은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어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갔었던 곳, 지난번에 만났던 그 분네들을 궁금해 하고 가보고 싶어들 합니다. 이로서 정이 오가고, 쌓이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도시가족 - 농촌가족 이 한가족으로 되어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지원으로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서울연합회가 펼쳐오고 있는 도·농교류 협력사업인 녹색농촌체험 관광의 뜻한바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체험을 하다보면 간혹 도시소비자와 농촌생산자 사이에 생각 차이로, 또는 서로 잘못 이해되어 엇갈린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도시 소비자는 뜻이 좋은 농촌사랑운동 차원에서 농촌체험을 하려고 나섰는데 농촌 생산자는 반가워하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잘 가꾸어 놓은 농장을 공연히 서투른 솜씨로 달려들어 망가트려 놓을까 걱정스럽고(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또 농촌체험 한다고 해서 일손도구(장갑·호미 등) 챙겨주는 뒷일 해주자니 너무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그런 저런 이유로 반갑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연고가 아니면 녹색농촌체험 마을이나 1사1촌 결연 마을을 찾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농촌 체험을 통하여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 민박을 하게 되면 도시 사람들은 시골된장국, 청국장, 손두부, 채소, 나물 같은 시골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농촌에선 손님 대접 잘해야 한다고 고기반찬에 소시지, 햄까지 곁들여 아침상을 차려오면 “아 이것이 아닌데...”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으로 배정받은 민박대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 일행을 맞은 안주인 옷차림이 밤늦은 시간에 안 어울리게 화려한 드레스폼 원피스에 목걸이, 귀걸이가 찰랑 거릴 때 정말 민망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일본 농촌체험을 갔을 때 앞치마(에프린)를 단정히 두르고 맞아주던 민박집 안주인이 대조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농촌을 찾는 대부분 사람들은 도시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미꽃이나 잘 정돈된 툇립보다는 야생화 같은 우리 꽃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코스모스 길, 장독대 빨간 맨드라미, 손톱을 곱게 물들이던 봉선화, 저녁밥 짓는 시간을 알려주던 분꽃, 동요 속의 채송화, 담장에 올라 아침을 알리던 나팔꽃, 단정한 백일홍 진분홍꽃, 가을을 곱게 물들여주던 과꽃, 들국화... 이런 꽃들은 우리들에게 어린 시절을 되돌려주는 환상의 꽃들입니다. 더구나 무더기 무더기로 군락을 이루어 흐드러지게 핀 꽃무리들을 만나면 “와~” 탄성과 함께 그 속으로 뛰어들어 사진을 찍느라 갑작스레 질서를 잃고 맙니다.

도시 사람들은 바로 이런 감동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밖으로 보여 지는 것은 고향 옛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안으로는 청결하고 위생적일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잠자는 이브자리가 밀폐된 공간에 오래 가둬놔서 축축한 냄새가 나는 것은 절대 싫어합니다. 햇볕에 잘 쪼이고 바람에 말려서 가슴가슬한 이브자리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도 기분 좋은 향내가 나고 벽에 예쁜 그림과 뜻있는 생활의 글귀가 걸려있으면 그 화장실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 이상 감동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민박을 하면서 모기에 물려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 “농촌 체험 하려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려봐야 한다고 언성 높이는 주인님은 안계셨으면 합니다.

도시 소비자들은 돌아오면서 만나본 사람들에 관하여, 음식에 관하여, 아름다운 자연에 관해 감동스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누구를, 어느 분을 만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정 있고, 투박하고, 진실해 보이고 또 농사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 같은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고 감동하지요. 또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하여 열심히 성공을 일구어낸 주인공들에게 감사하고 감동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모습엔 더더욱 크게 감사하고 감동합니다. 그동안 해온 도·농교류 「농촌체험 관광」을 통하여 얻은 확실한 결론은 저희들, 「농촌체험 관광」을 하고 있는 도시참가자들은 거의 모두가 농촌 지도자들에게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에 계신 너무 고맙고 귀한 분들께서 귀하게 대접받는 사회,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농촌을 지키고 계신 분들께 모두들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서울특별시연합회가 앞장서서 바람직한 방향의 도·농교류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빌어서 그동안 저와 함께 「농촌체험 관광」을 함께 해주신 농촌지도자님들, 그리고 서울 소비자님들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㉞